

청소년 마음에 빛 비추는 길잡이



절제·인내·소통 등
마음을 다스리는 힘 길러
굿뉴스코 프로그램 통해
나눔·봉사정신 함양
마음을 움직이는 영어교육
인성·지성 갖춘 인재 양성

자 살, 폭력, 범죄, 미혼모 등 청소년 문제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최근 국제청소년연합(이하 IYF)의 굿뉴스코 해외봉사단, 월드문화캠프, 영어말하기대회, 마인드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면서 교육계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청소년 문제 해결사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01년 설립된 범세계적 청소년 단체 IYF는 국제적 NGO로 차세대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지구촌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함께 왔으며 세계의 청소년들이 강한 마인드와 꿈을 가진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IYF의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청소년들이 올바르고 건전한 마인드를 갖는데 있다고 판단해, 마인드 교육을 통해 세계의 수많은 청소년들을 교육해왔다. 이런 성과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17개국 20명의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 청소년 문제와 교육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면서 각국 정부로부터 자문 요청의 손길이 이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꿈과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청소년들에게 도전정신을 불어넣고 차세대의 리더로 길러내는 IYF 교육의 핵심과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시각과 해결방안을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 조명해보고자 한다.



의 대회로 18년간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진 국제무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들은 타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IYF의 영어교육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기능을 넘어 사고력과 표현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끌어냄에 주목한다.

아울러 2004년부터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영어캠프는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영어'를 삶으로 가르친다. IYF 영어교육의 교사진은 (자신감과 흥미를 심어주며) 이는 현재 국내 뿐 아니라 멕시코, 아이티 등 저개발국가에 마인드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나, 베냉 등 각국 정부의 요청과 협조 속에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조로비 발로 국가능력구축사무청 총장이 한국을 방문해 IYF의 마인드 교육을 토크모델로 주목했으며 올해 6월부터 청소년 마인드 교육을 정부 차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에서 열리는 월드문화캠프에 세계 각국에서 20여명의 청소년부와 교육부장관 및 50여명의 해외 대학 총장들까지 마인드 교육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옥수 목사

▲청소년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는 IYF의 마인드 교육

마음의 세계의 원리를 알고 배워가는 마인드 교육은 IYF 청소년 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절제와 인내, 소통 등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어떤 어려운 형편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도전할 수 있는 강인마인드를 심어주고 소통할 때 얻는 행복과 감사를 배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지금 전 세계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이에 IYF는 이 세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마인드 교육'을 제시해 각국 정부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IYF와 손을 잡고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청소년 문제 해결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IYF 마인드 교육 전 세계가 '주목'

청소년 문제 해결 대안으로 마인드 교육이 대두되면서 IYF의 마인드 교육이 더욱 빛을 발산하고 있다. 세계 여러나라 정부와 정상들은 IYF 손을 잡고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7개국 20명의 정상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중국 공청단의 초청 강연, 2011년 케냐 정부 초청 청소년 마인드 캠프, 2014년 필리핀 재소자 마인드 교육을 비롯해 인도,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에게는 몇 해 전부터 '청소년 문제 전문가, 마인드 강연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때는 거슬러 1995년 어느 재미교포 학생의 절망적인 삶을 성경 속 지혜를 바탕으로 한 마인드 교육을 통해 변화시킨 것에서 시작했다. 지식과 기술 중심의 교육이 더 이상 청소년들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확신하고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10만여 명의 대학생들을 직접 만나 마인드 교육을 해왔다. 특히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고독 속에 잠들고 절망 가운데 눈을 뜨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젊은이들이 밤에 잠들 때 행복 속에 잠들고 희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박옥수 목사의 최종 목표이다. /장은성 기자

▲나눔과 봉사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는 '굿뉴스코(Good News Corps) 해외봉사단'

IYF의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 중 하나인 '굿뉴스코(Good News Corps)'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84개국에 매년 400~600여명을 파견해 1년 동안 새로운 마음의 세계를 실제로 부딪치고 경험하면서 교류와 도전정신을 배우게 하는 해외봉사 파견 프로젝트이다.

이들은 한글, 미술, 음악, 태권도, 마인드 교육 및 건축과 클린캠프인 등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등 교육과 문화외교, 사회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굿뉴스코에 지원한 학생들은 파견 전 소정의 교육 과정을 통해 마음의 세계와 행복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자제력과 사고력을 길러주는 마인드 교육을 통해 봉사단으로 자질을 갖춘다. 특히 마인드교육은 사고력을 자라게 해주어 봉사단원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굿뉴스코 해외봉사단'은 "내 젊음을 팔아 그들의 마음을 사고 살다"라는 슬로건 아래 2002년 1기생 14명 파견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내인원은 6,400여명과 전 세계 30만여 명이 참가할 만큼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교육의 핵심 마음을 움직이는 영어 인재' 발굴의 요람 IYF

IYF 글로벌 교육의 핵심키워드는 바로 마음을 움직이는 영어 교육이라 할 수 있다. 2001년 IYF설립 이후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어말하기대회'와 '영어캠프' 등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성과 지성을 두루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영어말하기대회'는 국내 중·고·대학생들이 국제적 언어 감각을 습득하고, 스피치 향상에 중점을 두고 매년 실시하고 있다.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논리와 메시지가 있는 스피치를 추구하며 국내최대 규모, 최고 권위



1. 굿뉴스코해외봉사단을 다녀온 대학생들과 IYF 설립자 박옥수(왼쪽 세 번째) 목사. <사진=국제청소년연합 제공> 2. 로드리고 두테르테(중앙, 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과 IYF 설립자 박옥수(왼쪽 세 번째) 목사 3. 우후루 케냐타(앞줄 중앙, Uhuru Kenyatta) 케냐대통령과 IYF 설립자 박옥수(앞줄 왼쪽) 목사 4. 에스와티니 국왕(왼쪽)과 IYF 설립자 박옥수(오른쪽) 목사 5. 페르난도 루고(오른쪽, Fernando Lugo) 파라과이 전 대통령과 IYF 설립자 박옥수(왼쪽) 목사 6. IYF 아이티 영어캠프 7. 2018 영어말하기대회 수상자 8. 굿뉴스코해외봉사단 '태권무 시범' 장면